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6월 10일 (제954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깨어 있어라

나는 베트남 목회자 일행이 도착하는 날,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잠을 못 잔 이유는 이렇다.

베트남 목회자들이 6일 아침 6시 40분 비행기로 오는 것을 알기에 그에 맞춰 준비하고 공항에 나가 영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기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에 허송하고, 영접할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였다. 마태복음 24장 48절 이하에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술을 마시며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악한 종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생각지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날과 그 시를 안다면야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서 하나도 낙오됨이 없이 다 들림을 받을 수 있으면만 그럴 수 없으니 답답한 마음을 누를 길이 없어 잠을 설쳤다.

그렇다고 답이 없을 소냐? 그럴 리 없다. 늘 깨어 있으면 된다. 늘 깨어 있으면 언제 오시든 어느 시에 오시든 문제없이 다 들림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44). 기쁨을 넉넉히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된다.

나는 우리 교단 주의 종들의 심령에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려고 한다.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단단히 조이고, 내려앉은 눈꺼풀을 다시 들어 올려 깨어 있는 교단,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 예수님이 불현듯 오셔도 넉넉히 들림 받게 하련다.

이초석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6월 6일, 이른 새벽 창공을 가르고 베트남에서 귀한 손님들이 오셨다. 그들은 베트남의 기독교계의 거성들이다. 베트남 교단연합회(VEF) 회장이며, 장로교단 총회장인 호 평 코아(HO TAN KHOA)를 비롯해 베트남교단연합회(VEF) 수석부회장이며 가나안교단 총회장인 왕 흐우 히우(NGUYEN HUU HIEU), 침례교단 총회장인 왕 통(NGUYEN THONG) 목사님 외 7명이다. 그들은 오직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중심교회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계시며 지금도 사도행전을 쓰고 계시는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러 한국에 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곳에 오기까지 쉽지 않은 앓았다. 한국 교회교단연합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결사반대를 외치고, 베트남 교단연합회 회장단과 미팅하며 모든 부정적인 자료들을 다 가지고 와서 공격하

천교회 장영국 목사님을 비롯해 장로님들과 청년들이 꽃다발을 들고 새벽부터 나와 그들을 기쁨으로 맞았다. 왕 통 목사님은 공항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방한소감을 전했다.

일행은 베트남 국기가 꽂힌 리무진 5대에 나눠 타고 인천교회에 도착했다. 인천교회에는 일찍부터 총회장 목사님이 한복을 입은 권사들과 여전도사들과 함께 일행을 맞이했다. 성전 앞에서 기념 촬영 후 베트남 목사님들은 모두 방명록에 서명을 했다. 그 중 통역을 맡은 왕 홍 하이(NGUYEN HONG HAI) 전도사는 능숙하게 한글로 방명록에 서명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

본 성전을 향하여 계단을 오르자 미리 준비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환영 광파르를 울려주었고, 성전 안에서는 연합성가

다운 곳이었다. 인천교회 국순창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환영행사서 인상적인 선물증정식이 있었다. 24K 1돈으로 된 기념패가 그것이다. 목사님은 “금은 변하지 않는다. 누구나 처음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한다.”고 기념패의 의미를 설명하셨다. 인천교회 장로님들도 베트남 목회자 일행에게 푸짐하게 선물을 건넸다.

목사님은 “우리는 한 형제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한 나무에서 난 가지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함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우는 일이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베트남 복음화 하는 일에 전력하고 싶다. 귀한 동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고로 바람이 있고 파도가 있어야 선원들이 멀미를 안 하는 법이다. 파도 한 방 얻



베트남 목회자 방한(2018. 6. 6)

고 협박하기도 하고, 베트남에서의 집회와 베트남 목사님들의 한국방문을 반대한다는 등 난리를 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의지는 확고했다. “우리들이 바보가 아니다. 자체적으로 보내주신 동영상을 열 번, 스무 번 돌려보았다. 그 안에서 이단적 요소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분은 입만 여시면 예수님만 자랑하시더라. 당신들은 당신들 일이나 전념해라.”하며 회유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무랐다고 한다.

공항에는 서울교회 이시대 목사님과 인

대가 ‘선한 목자’와 ‘피날레’를 찬양했다. 베트남 목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처음 들어보았으며, 꼭 베트남에 와서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성가대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왕 통 목사님은 단에 올라 “대한민국을 축복해주시고, 이 교회와 이초석 목사님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노종의 간절한 기도가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목사님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송도의 만찬장은 한옥으로 지어진 아름

어맞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고 베트남 복음화에 주력하자.”고 당부하셨다.

베트남 목사님들은 태어나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았으며 감동했다. 지난 주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을 감동시키자.’라는 설교말씀에 응답이었다.

베트남 목회자들을 예수님처럼 영접해 주신 모든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기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는 베트남 목사들



축하 케익을 찌르고 있다



찬양으로 함께 해 준 성가대원들과 함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0:32~42)

내가 보낸 사신을 감동시켜라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몇 번이나 대접하셨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요?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원에서 한 청년에게 제가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청년 역시 황당한 질문이라 여겼는지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더군요. 저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고,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란다.” 그 청년은 크게 깨닫고는 당시 청소년수련회에 참석한 모두에게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대접했습니다. 그 청년은 한꺼번에 예수님을 수없이 대접한 것입니다. ‘어떻게 소자에게 한 것이, 어떻게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됩니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예루살렘으로 후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을 지나는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9:4)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이 누구냐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행9:5)고 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신을 핍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생각하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듯, 소자에게 한 것이, 주의 종을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마10:40~41).

감동이 없는 대접은 시간낭비, 에너지낭비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를 잘 섬기는 수넵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사역을 하는 엘리사를 위해 수넵 여인은 음식을 제공했고, 나중에는 남편과 상의하여 작은 방까지 준비하여 엘리사가 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집에 아들을 주시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살려 되돌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넵 여인이 복을 받은 것은 선지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잘 대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을 지나다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과부는 침통한 심정으로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사연인즉 과부는 나무를 주워서 통에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구워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에 가뭄이 극심한지라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으니 과부 집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모자의 최후 한 조각의 떡을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드릴 수 있을까요? 글썽요. 그러나 사르밧의 과부는 그 떡을 선지자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

가
지
그
통
의
가루는
다
하
지
아
니
하
고
그
병
의
기름은
없
어
지
지
않
는
복
을
받
았
습
니
다
(왕상17:14).

저는 엘리야가 그 떡을 무덤덤하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동해서 아마도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먹었을 겁니다. 엘리야만 감동했을까요? 하나님도 감동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자를 넘치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상대가 감동하게 해야 합니다. 기업은 고객이 감동할 때까지 해야 하고, 가족이, 스승이 감동할 정도로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감동을 주지 못할 일일랑 아예 하지 마세요. 괜히 시간 낭비요, 에너지 낭비요, 돈 낭비만 됩니다. 하나님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예배를 일천 번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

데 일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소 한 마리씩만 드렸어도 그 값이 얼마며, 번거로움 또한 무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에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하셨습니다. 감동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 다 줄 테니 무엇이든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돈이나 명예나 장수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또 한 번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는 물론이요 부와 영광도 그에게 주셨습니다(왕상3:13).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기도를 드리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세요(요4:24). 순종을 해도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아들

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갈등하지 않고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단칼에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하게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침없는 행동에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놀라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창22:12). 그래서 그에게 큰 복을 주고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찬송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송을 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호와와 제가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 다윗은 너무 기뻐 하체가 드러나도록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을 본 아내 미갈이 다윗을 보며 ‘쫄쫄쫄... 태생이 목동이라 어쩔 수 없구나. 체통 좀 지켜라.’ 했을 때 다윗은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네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삼하6:21) 하고 다시는 미갈에게 들 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를 들은 하나님이 내색은 안 하셨지만 다윗에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향하여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인정받기 원하면 상대를 감동시켜라

현금을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와서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렸습니다. 이를 본 어떤 이는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그걸 왜 아깝게 깨트리냐?’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에 감동하셔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마26:13)고 하였고, 그의 오라비가 죽었을 때 살려주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귀한 향유를 받으셔서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부의 두렷돈을 보시고도 예수님은 감동하셨습니다(눅21:2~3).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견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단3:17~18)라고 고백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에도, 사자굴에 던져질 위험 앞에서도 당당히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도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인 위에 높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6월 베트남에서 개신교 각 교단 총회장님들이 대거 입국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 모시듯 마음을 다해 대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이 일에 여러분도 동참하라고 독려한 것은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지 말고, 무임승차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극진히 대접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 왔을 때 그들의 발을 씻기고 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 그들을 잘 대접했으며, 그들이 가는 길까지 전송했더니 노년에 아들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신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용달샘 ::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

6·25전쟁 때 갑작스런 중공군의 난입으로 국군은 분투(憤淚)를 머금고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그리고 뒤를 이어 그 유명한 1·4후퇴가 벌어져 온 나라가 피난 행렬로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이 난국을 해결하고자 당시 정부는 전국에 10대 후반부터 40대 남성들에 대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이때 모인 남정네가 무려 50만! 이들을 국민방위군이라 칭하고 후방 51개 훈련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서 전세를 뒤집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여기서 막대한 비리가 터져 나온다. 사령관으로 임명된 김윤근 준장과 그 일당들이 작당하여 그 당시 23억, 현재 화폐가치로 따졌을 때 무려 15조원이니 되는 부대 예산을 착복한 것이었다. 이 때문에 동원된 국민방위군들에게 식사는 물론이거니와 피복과 전투장비, 심지어 숙소 또한 지원되지 않았고 이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엄동설한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간 젊은이들이 속출했다. 결국 조직된 지 100일 만에 8만 명, 최종적으로 10만여 명이 죽어갔다.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해 전사한 군인 숫자가 총 14만 명이었는데 총 한 번 제대로 켜어보지 못하고 헛되어 길에서 죽어나간 희생이 이 정도라니... 더구나 이러한 비리사건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양상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고야 말았다.

성경에는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의 공통점을 지닌다.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리, 자기 위치를 이탈할 때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나 가족, 그리고 나라에 화(禍)가 뒤따랐다는 점이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바로와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을 떠났을 때 발생했다. 세겜에서 디나가 몸을 더럽히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그 땅에 안주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훌리와 비느하스가 ‘벨리알의 아들’, 곧 ‘마귀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로되 하나님의 제물을 탐하고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을 함부로 취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질투에 눈이 뒤집혀 왕의 소임은 뒤로 한 채 평생을 다윗을 뒤쫓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던가!

이는 비단 성경에만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 본분,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망각하고 재물을, 명예를, 쾌락을, 편안함을 추구하다 넘어지고 자빠진 영혼들이 우리 주위에 한 둘이 아니지 않는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것이 욕심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이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지 말자! 자기 본분, 자기 사명에 집중하자!

신현명 목사
yeddo1@hanmail.net

:: To Be Succeeded ::

하나님과 동행하다

수년 전, 새롭게 직장에 갔을 때의 일이다. 모집공고를 보고는 딱 내 적성이란 생각에 이력서를 넣고 교육을 받은 것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교육을 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에게만 즉시 업무지시가 내려왔다. ‘왜 유독 나만?’ 이쪽에 경험도 거의 없고 교육 중이니 좀 봐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어쩔 수 없단 얘기뿐이었다. 게다가 내가 투입될 곳은 이전 직원이 십 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직인지라 심리적 부담감이 가중됐다.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별의별 걱정과 두려움에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로마서 4장과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걱정과 두려움에 간혀있던 나를 강하게 끌어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건 믿음이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 두려워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 말이다.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기를 한 주, 두 주...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첫 수업에 만족했는지 한 학부모가 주변 엄마들

에게 소개한 모양이었다. 계약이 잇따랐다. 기존 고객들도 대체로 만족해서 당초 우려와 달리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었다. 두려움과 걱정은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었고, 별 기대하지 않았던 상사들도 놀라는 눈치였다. 물론 굉장하 까다로운 고객들, 정말 수업이 쉽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고 체력 소모도 상당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가 나로 낙심치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케 했다.

그 때 난 확실히 알았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힘을 다하면 내 자격과 조건,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고 함께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살인자요, 백발노인에 허까지 둔한 모세가 끝내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구원이며,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는 다윗의 고백은 저 천국 향해 좁은 길을 걸으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좇아 전심전력하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이국진
joyful_jina@hanmail.net

나이

어느 코미디언이 인생을 상품으로 비교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명품, 30대는 정품, 40대는 기획상품, 50대는 바겐세일품, 60대는 창고 반출품, 70대는 분리수거품, 80대는 폐기품, 90대는 소각품.”

그냥 웃어넘기자니 왠지 씁쓸하고 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반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인생을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 나올 법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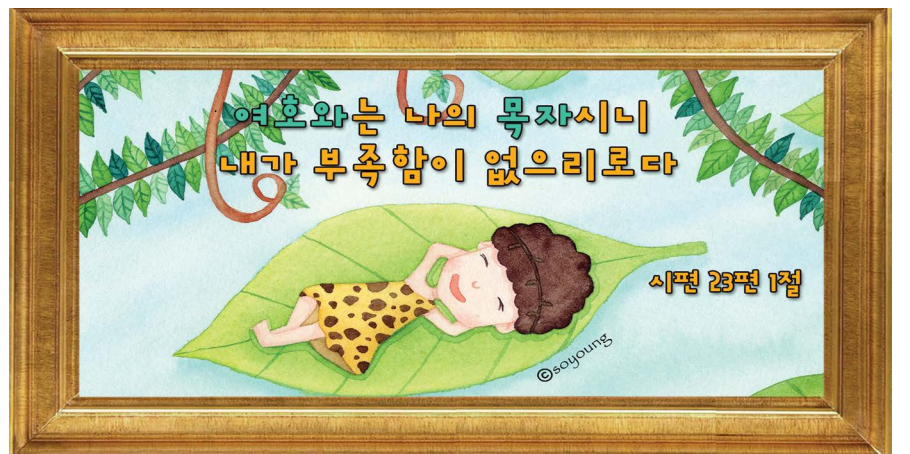
인생을 생물학적 나이로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정신적 나이가 더욱 중요합니다. 누구의 노래 말처럼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익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늙은 낙타를 타라’는 말이 있는 것은 살아온 세월만큼 더 많은 지식과 더 큰 생활의 지혜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이 결코 서러운 것만은 아니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의 걸사람은 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고 알차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경배함은 더욱 날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경건과 인내와 사랑이 뿌리를 깊게 박은 고목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걸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고후4:16).

그래서 필자는 이렇게 씁니다. “10대는 신상품, 20대는 핫상품, 30대는 주력상품, 40대는 정품, 50대는 최상품, 60대는 특상품, 70대는 명품, 80대는 희귀품, 90대는 최고의 골동품.”

성경 말씀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잠16:31). 늙은 것을 서럽다 말고, 영·혼·육의 최고의 골동품이 되게 노력하자.



:: 연단을 넘어 ::

경험엔 낭비가 없다

어린 시절 나는 중학교 때까지 키가 작아 늘 앞자리에 앉았고 몸도 왜소해 활동에 자신감이 없었다. 기억력과 이해력이 부족해 성적도 바닥에 머물렀다. 또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영양 결핍으로 가슴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 한쪽만 움푹 파인 기형적인 모습 때문에 한여름에도 내의를 여러 벌 껴입곤 했다. 그리 넉넉하지도 않았던 어린 시절의 끝이 없던 고난의 시간, 열등감과 열패감, 신체적 콤플렉스들은 그 순간의 나를 정의했고 내 소심한 성격을 결정해버렸다. 그랬던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사 나를 사랑해주시고 동행해주시고 고쳐주셨다. 더욱이 부족한 나를 교사로, 전도사로 불러주셨다. 그때 깨달았다.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고통스런 순간들이 하나님의 날들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였음을.

기억력이 나빠 남들보다 4~5배 더 노력한 덕분에 끈기와 인내를 배웠다. 몸이 약하다 못해 폐결핵까지 걸려 뼈와 피부만 남게 된 덕분에 이를 악물고 운동하여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었다. 외모를 바꿀 수 없어 속사람을 가꿨더니 배려와 친절함과 유머가 자라나 나만의

매력을 만들었다. 움푹 패인 가슴뼈를 만질 때면 나의 부모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날아주시고 길러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이 끝없이 밀려온다.

내가 공부를 못했었기에 공부를 잘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었고, 머리가 좋지 않은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도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 몸이 약하고 마른 아이들에게 내 지난날의 사진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소망을 품고 운동하여 더욱 건강해졌다. 외모에 콤플렉스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내 가슴뼈를 만지게 해주며 나도 그랬었음을 이야기하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 소망의 날개를 퍼지 못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 고통을 아는 아비의 심정으로 섬겨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소망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난 어제의 고난을 회상하며 고백한다. “주님께서 나의 아픔의 경험들을 사랑과 공감 묵화의 귀한 자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경험엔 낭비가 없다.

이은총 전도사
unjena7@hanmail.net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하루는 옛 직장 선배를 만났습니다. 평소 에 자주 얻어먹었던 지라 그날 저녁은 제 가 사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기쁘게 약 속장소로 갔지요. 그런 의도를 전혀 몰랐 던 선배는 워낙 먹는 걸 좋아해서 둘이서 먹기 힘들 정도의 음식을 잔뜩 시켰습니 다. 제 입은 요리를 먹고 있었지만 머릿속 은 ‘이걸 다 합치면 얼마지?’ 계산하기 시 작했고, 급기야 선배가 디저트까지 이것저 것 추가하자 조금 짜증도 났습니다. 식사 를 마치고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말 하며 계산서를 들었을 땐 이미 처음의 기 썩 마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음식 값이 훨씬 많이 나와서 속상 했고, 맛있는 요리 또한 제대로 즐기지 못 했지요.

근래에 또 다른 선배와 점심 약속이 있었 습니다. 최근에 도움을 받은 일이 감사해 점심을 사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했지요. 만 나기로 한 식당이 꽤 비싼 곳이었지만 둘 이서 서너 가지를 시킬 걸 염두에 두고 넉 넉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배 에게 요리를 더 시키라고 먼저 권하게 되 고, 예상보다 음식 값이 적게 나오자 커피 를 사려는 선배를 만류하고 제가 커피도

사게 되더라고요. 요리도, 만남도 좋았거 니와 무엇보다도 마음이 기뻏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의 한 가 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든지 네 오 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 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 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 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라”(마5:39~41).

처음의 좋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기란 쉽 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오 리까지 동 행하려고 마음먹었는데 갑자기 상대방이 십 리까지 같이 가달라고 하면 그때부터 는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위하 는 친구에게 좋은 마음으로 재킷을 벗어주 었는데 그 친구가 셔츠까지 벗어달라고 하 면 화가 나지요. 3시간 봉사라고 해서 겨 우 시간을 내서 갔는데 난데없이 6시간을 하라고 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어려운 이 웃에게 식사하시라고 만원을 주었는데 만 원을 더 달라고 하면 기분이 안 좋아지죠. 처음에 가졌던 좋은 마음은 금세 사라지 고 맙니다.

반대로 오 리까지 동행하기로 약속했지만 처음부터 십 리까지 동행할 마음을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돌연 십 리까지 함께 가 달라고 할 때 기꺼이 동행할 수 있게 됩니 다. 처음부터 셔츠까지 벗어줄 마음이 있 다면 친구가 재킷에 셔츠까지 달라고 할 때 기분 좋게 내어줄 수 있지요. 3시간 걸 리는 일이지만 처음부터 6시간을 일하겠 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러 간다면 갑작스레 늘어난 일에도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 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2만 원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게도 처음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게 되고요.

사람을 대접할 때, 부모님께 효도할 때, 교 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새삼 두 번의 식사 약속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 음부터 내가 평소 하려던 것보다 두 배는 더 하자고 마음을 먹으면 누군가 무리한 것을 요구했을 때 여전히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ですよ. 하나님이 주신 좋은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힘, 속옷을 달 라면 겉옷까지 주려는 그 넉넉한 마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은혜 자매
dopal0203@naver.com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 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 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은혜의 선 물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 원을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 수 그리스도는 피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 신 것입니다. 당신은 그 놀랍고 위대한 사 랑을 받은 자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위장병, 생활을 바꿔야 산다

한국인에게 가장 흔한 병이 위장병이다. ‘더부룩하다’, ‘속이 쓰리다’, ‘트립이 난 다’ 등 증세도 다양하다. 어느 경우든 위 장이 나쁜 이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은 내시경 검사다. 암이나 궤양 등 원인 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위암은 조기발견 의 경우 수술로 복부를 열지 않고 내시경 이나 복강경만으로도 95%내지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궤양 역시 ‘아직도 속 쓰 림으로 고생하십니까?’란 말이 나올 정 도로 강력한 치료제가 속속 등장해 대부 분 수주 이내 먹는 약만으로 완치가 가 능하다.

문제는 내시경에도 잡히지 않는 위장병 이다. 내시경 소견은 정상인데 환자는 아 픈 경우를 말한다. 대부분의 위장병이 여 기에 해당한다. 흔히 ‘신경성 위장장애’, 혹은 ‘기능성 위장장애’라 부른다. 이러 한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내 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 자신의 위장이 왜 탈이 났는지 깨 닫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 신경성 위장장애는 스트레스로 뇌와 위 장을 연결하는 자율신경의 리듬이 깨져 서 나타난다. ‘아, 내가 신경을 많이 썼 구나. 좀 쉬어야겠네. 하지만 내 위장은 아무 문제가 없어’라는 자신감이 필요하 다. 둘째, 주시하지 말자. 자신의 위장을 끊임없이 의식하지 말란 뜻이다.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 상 자신의 위장을 의식한다는 것이다. ‘이 제 밥을 먹었으니 좀 있으면 속이 더부 룩해지겠지’라는 식이다. 매사 이런 식이 니 건강한 위장이라도 배겨날 리 있겠는 가. 다소 아프더라도 다른 일에 몰두하 며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게 좋다. 셋 째, 음식을 먹을 때 위장을 배려해야 한 다. 오장육부 중 유일하게 이식수술이 불 가능한 정교한 장기이다. 거친 섬유소가

많은 비빔밥이나 기름기가 많은 자장면 은 좋지 않다. 대신 익힌 곡류나 살코기 는 소화가 잘 된다. 쌀죽에 쇠고기 장조 림을 곁들여 먹는 게 좋다. 넷째, 걷기가 보약이다. 걷게 되면 긴장이 누그러지면 서 성난 위장의 자율신경을 달래주는 효 과가 나타난다. 아울러 복근이 저절로 강 화되면서 위장의 움직임도 원활해진다. 식후 1시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은 매우 좋은 습관이다. 다섯째, 복식호흡을 해보 자. 한 숨 자체가 교감신경의 톤을 떨어 뜨려주며 동시에 위장 근처 횡격막 근육 의 경직도 풀어주기 때문이다. 이때 복 식호흡은 들숨보다 날숨을 길게 하는 것 이 권장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잠 15:13).

Dr. 조희경 집사
pearl9230@naver.com

바보상자와의 전쟁

인간의 결단을 나약하게 만들고 작심삼 일로 그치게 하는 아주 비밀스런 존재가 있다. 바로 늘 우리 곁에 있고, 너무나도 친숙한 텔레비전(TV)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TV의 비밀스런 역할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유 익한 뉴스를 전달하고 교양정보를 주며 웃음과 감동을 주는, 너무나도 유익하고 친숙한 존재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통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는 사 람에겐 TV의 이러한 역할이 충분히 도 움이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게는 내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가며, 자 기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무익한 존 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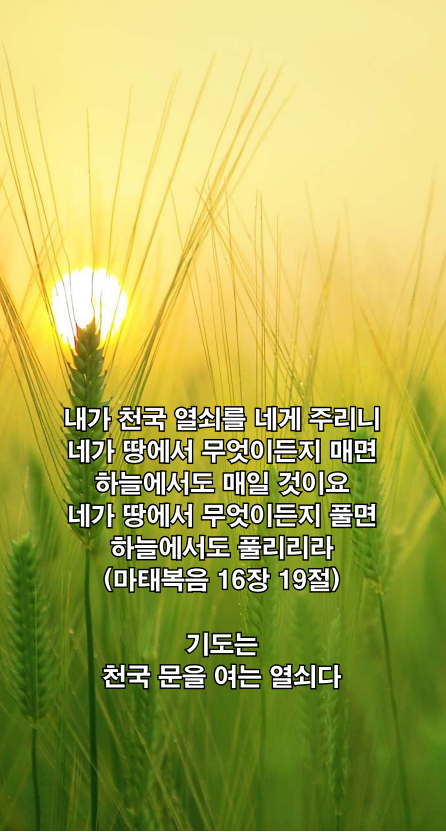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알고 있다. 고된 업 무 후 집에 돌아와서나 황금 같은 주말에 TV를 틀게 되면 얼마나 힘없이 내 의지 를 빼앗기고 시간을 송두리째 바보상자 앞에서 보내게 되는지를….

책을 다시 읽기로 결단하고 함께 실행했 던 일이 바로 TV 없이 살아보는 것이였 다. 결단하고 TV를 과감히 끊고 나니 여 유 시간이 생기고 비로소 책이 손에 잡히 기 시작했다. 그동안 TV를 통해 얻어왔 던 교양정보나 뉴스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충분히 아니, 오히려 더 많이 효율 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

TV와의 이러한 전쟁에서 이기고 1년이 넘어선 지금, 더 이상 TV에 대한 그리 움은 없다. 전자제품 좋아하는 남자로서, 멋진 전자제품이 하나 없어졌다는 아쉬 움 정도만 있을 뿐? 오히려 남아있는 건 한층 더 독서와 공부로 성숙하고 발전된 현재 내 모습이다.

개인적으로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 命)’이라는 한자성어를 좋아한다. 사람 이 할 일은 사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 을 기다리는, 늘 기도와 노력을 겸비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장명훈 집사
jjoshua@hanmail.net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기도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